

선인장의 다양한 효능 입증...각종 음식·제품 주목

<25> 문영인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데스크승인 2014.08.20 이윤주 기자 | yjhnb@jejunews.com



백 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백년초는 예로부터 해열·진정·기관지 천식·소화불량·위경련 증상·변비·혈액순환 불량·두통·당뇨병 등에 뛰어난 약효와 효능을 가진 식물로 알려져 민간에서 널리 사용됐다.

특히 요즘 백년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효능이 입증되고, 웰빙과 로컬푸드 바람을 타고 백년초를 이용한 음식과 제품 등도 주목 받고 있다.

백년초는 고혈압·노화억제·항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페놀성 물질과 플라보노이드가 생강, 칩뿌리 등에 비해 다량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칼슘·철분·비타민C 등도 많이 함유되어 피부미용과 몸이 붓는 부종 억제, 관절염, 다이어트 등에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에는 신경보호 활성화, 장기 기억력 향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백년초의 열매와 줄기를 가공해 초코렛, 차, 비누,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문영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995년부터 백년초를 지역특산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가치와 영양 분석을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가공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소장은 "최근에는 열매와 색소의 차이만 있고 효능은 비슷한 줄기 수요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백년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이 확대된다면 감귤에 이어 제주의 주요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소장은 "백년초는 효능이 우수해 제주의 관찮은 소득 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시가 많아 생산과 수확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에 가시가 적은 선인장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는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는 미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